

거친 눈발 이겨낸 푸른 소나무의 자태

병풍바위 틈새 해풍 이겨내고 곳곳히 생존

관광으로 목포경제를 살리자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목포투데이는 '관광목포'의 핵심역할을 찾자는 취지로 '신목포관광여행'을 연재한다.

新 목포관광 여행

<10> 고 하 설 송

그러라. 그리고 또 그러라. 그러다 그러다가 시커먼 벽돌이 처진다. 면 아예 내던져라. 찢어버려라.

그대들이, 아니 내가 어찌 저 만년 소나무의 자태를 담을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은 욕심이자, 자연에 대한 모독이다.

고하도의 가장 높은 곳 칼바위에 서 웅두머리를 보라. 온통 소나무 천지이다. 병풍 같은 바위를 따라 바다에서 우뚝 솟은 산호초 같다. 그들은 뭉쳐있고, 그 거센 바다바람에도 살짝 흔들림을 주듯 움직일 뿐 부러지지 않는다. 바다에서 힘껏 솟구친 붉은 마그마가 토해내었다가 굳어진 고하도의 암벽 따라 벌쳐 수만년의 세월이다.

왜 하필이면 목포관광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것이 고하설송(고하도의 눈덮힌 소나무)인가. 그대들이 "날이 추워진 다음에야 소나무, 잣나무의 푸름을 알게 된다"고 했던 논어의 깊은 뜻을 알고 있는가.

눈이 떨어지는 날 대반동 유달산 낙조대에 올라 고하도를 내려다 보라. 저 멀리 다도해에서 천군만마의 기세로 달려온 눈보라는 낙조대를 거쳐 일등바위를 휘감아 올라간다. 사람도 해도 뿔만해도 몸을 숨겼건만 고하도는 꺾이지 않았다. 나는 올 해 그 처디친 겨울,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강한 눈보라 속에서 고하도를 내려다보았다. 몸과 사지기를 든 손은 쫄쫄 얼어붙었으나, 눈과 귀는 자연

의 신비에 활짝 열렸다. 어느새 내 얼굴에 내린 눈은 녹아 눈 주변부터 눈물처럼 흘러 내렸다.

눈보라 속 고하도 의연

그리고 올 해 여름이 오는 길목에서 꼭 그 고하도를 그리고 싶었다. 눈보라가 햇빛에 쫓겨 다도해를 덮었던 구름사이가 무섭게 벌어진 채 햇살이 고하도를 끌어안을 때, 고하도 저 멀리로부터 달려오는 생명의 소리를 화풍에 담고 싶었다. 그것은 푸르던 일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앙상한 가지만 넘치는 세계에서조차 여전히 푸른 빛을 보이는 소나무의 생명력이었다. 병풍 같은 절벽 바위 사이에서도 여전히 따뜻한 기상이었다. 온갖 시련 속에서도 견뎌내는, 꼭 간직하고픈 마음이었다. 눈은 오고 있었으나 고하도를 완전히 덮지 못했다. 만년 바위도, 만년 설송도 사라지지 않았다.

고하설송의 숨겨진 아름다움은 척박한 땅을 매립하여 간직하고, 곳곳히 현대사를 지탱해 온 목포정신이다.

마음 깊이 고하설송을 그리면서 나는 소나무를 뒤덮은 눈을 그리지 않았다. 대신 주변을 어둡게 하여 그리지 않은 부분을 회개 남겨두었다. 커다란 나무도 다 그리지 않았다. 나무의 울골은 강한 생명력이 꿈틀 꿈틀 느끼지는 푸른 동지판 화

면 가운데 가득 차게 하였다. 나에게 있어서 고하설송의 매력은 눈이 아니다. 푸르른 생명력이었다. 눈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푸르른 생명력을 강조하고, 주변에 어둠을 그려 낯선 기하개도 눈이 만들어졌다.

고하설송의 미적가치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었다.

이러한 생각은 일찌감치 연암 박지원과 이인상의 고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박지원이 어느 날 이인상에게 설송도 한 작품을 그려 달라 했다. 이인상은 그려줬노라고 대답을 했으나 보낸 것은 '눈이 내리네'라는 제목의 시였다. 박지원은 이 친구가 시까지 보내는 것을 보니 정말 그림은 근사하겠군 생각을 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그림 소식은 없었다. 참지 못한 박지원은 "자네 나에게 설송도 그려 준다고 했었는데 어떻게 됐는가?"라고 재촉을 했다. 이인상은 "자네 지금 답답하는가? 내가 이미 그



고하설송의 숨겨진 아름다움은 척박한 땅을 매립하여 간직하고, 곳곳히 현대사를 지탱해 온 목포정신이다.

국 소년 부랑이들의 갱생시설이었던 감화원과 주민들이 생활했던 마을은 철저히 격리되었고 이에 따라 북쪽의 소나무들은 오랫동안 잘 보존되었다.

숲의 진화에 따라 필연적으로 오는 참나무의 번식력은 아직은 미미하다. 섬으로 고립되어 참나무들의 씨앗을 실어 나르는 다람쥐나 새들의 이동도 작았다. 강한 해풍은 도

뜻하게 했고, 송판으로 가구를 만들었다. 솔잎자, 솔잎주가 인기를 끌었고, 꽃가루로는 송화주를 빚고 새순으로는 송순주를 만들었다. 그것 뿐인가. 기근이 올 때는 속껍질 송기를 벗겨 떡도 만들고 죽도 만들어 어려운 시기를 이겨냈다. 소나무 뿌리에 기생하는 북령은 약재로 쓰이고 송이버섯은 최고의 음식이었다. 또 소나무 껍질에 흠을 파서 송진을 모아졌으며, 소나무 뿌리로부터 송근유(松根油)라는 기름을 만들어 불을 밝혀 썼다. 소나무를 태운 그을음 송연(松烟)으로 먹(墨)을 만들어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렸다."

버릴곳 없는 소나무 찬가

소나무는 액세서리나 선비들의 풍류의 소재로도 이용되었다. 여승들이 쓰고 다니는 모자인 송낙(松纈)은 소나무겨우살이로 짠주머니 비슷하게 엮어 만들었고, 양반들의 마고자 단추는 송진이 뭉친 호박으로 만들었는데 고풍스럽고 단아했다.

시인들은 바람결에 흔들리는 소나무의 운치 있는 맑은 소리를 즐겼다. 선비들은 푸른 소나무의 기상을 닮으려 했다.

내려오는 길목에 재선충병에 걸린 소나무와 외부로 반출이 안된다는 표지판이 눈에 띄었다. 소나무의 에이즈로 불리는 전염병이다. 이 병은 소나무 잎을 갈아먹을 때 생기는 상처를 통해 전염되는데, 송수염해충소가 재선충을 옮기는 역할을 한다. 겹뿔을 때는 30일 만에 말라 죽는다. 몸이 무너지는 듯

자가 들어가는 곳이 681곳이나 될 정도로 소나무는 가장 친근하면서도 애정이 가는 나무이다. 고하도 웅두머리를 돌아 다시 내려오는 길목에서 잠시 숨을 돌려본다. 바위 옆에 있는 소나무 한 그루가 참 용감하게 생겼다. 굳게 맺은 품새가 학이 도약하기 전 잔뜩 응축시킨 힘처럼 느껴진다.

"해풍을 견디는 놈" 가상하다는 생각이 입에 잔뜩 머금은 막걸리 한 사발을 풀어 먹어준다. 함께 동행한 신 기자의 체근보는 눈빛이 의아함으로 가득차 모인다.

"허허, 원래 소나무는 선비들의 술친구어. 막걸리에 풍부하게 함유된 탄닌질이나 각종 미네랄을 이용하여 소나무의 기력을 회복시키는 민간요법이라네. 적어도 몇 말은 마셔야 한철 보내기가 거든 할런디. 아쉽구만."

술꾼들의 오상한 괴변으로 생각 말라. 국내 유일의 도심 속 소나무 군락지인 서울 우이동 솔밭공원 소나무 1000여 그루는 아예 날을 잡아 나무마다 막걸리 4잔씩을 마신다. 천연기념물 180호인 운문사의 처진소나무는 매년 봄 12말의 막걸리를 마신다.

내려오는 길목에 재선충병에 걸린 소나무와 외부로 반출이 안된다는 표지판이 눈에 띄었다. 소나무의 에이즈로 불리는 전염병이다. 이 병은 소나무 잎을 갈아먹을 때 생기는 상처를 통해 전염되는데, 송수염해충소가 재선충을 옮기는 역할을 한다. 겹뿔을 때는 30일 만에 말라 죽는다. 몸이 무너지는 듯



재선충병에 걸린 소나무라 외부로 반출이 안된다는 표지판이 눈에 띄었다. 소나무의 에이즈로 불리는 전염병이다.

한 전술에 선포해진다.

국기봉에서 공생재활원(구 감화원) 쪽으로 내려와 떠날 채비를 서둘렀다. 광풍이 휘황하고 불더니 열어놓은 자동차 문이 광하고 세계 단진다. 허물어져가고 있는 옛 건물에서 키우고 있는 개들이 신들린 것처럼 울부짖는다. 들어보지 못했던 묘한 하모니가 어울린 합창이다.

"저런, 일제시대 감화원에서 굶주려 죽은 영혼, 탈출을 생각하며 바다에 몸을 던졌다가 한을 품은 귀신들이 깨어났구나. 속세의 욕망없이 고하도를 밟은 한량들을 떠나보내기가 무척이나 아쉬운 모양이구나. 그래 함께 가지구나"

다시 목포로 발길 재촉하는 사람들의 목젓이 뜨겁다. / 정태영기자



눈덮힌 소나무. 공자는 날이 추워진 다음에야 소나무의 푸르름을 알았다고 했다.

고하도의 쓸쓸함 물리친 생명력 강인 일부 치명적 재선충 감염 대책시급

려주지 않았는가." 라고 반문했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 박지원은 "자네 무슨 농담을 그렇게 하나? 나한테 언제 그림을 그려줬나? 그때 자네가 나에게 눈이 내리네라는 시를 써서 글씨를 준 적은 있지만 그림은 그린 적이 없네" 라고 정색을 했다. 그랬더니 이인상은 "그 보게. 그 속에 설송도가 다 들어 있네" 라고 진지하게 말했다.

바로 시 속에 그림이 있고, 그림 속에 시가 있다는 경지이다.

고하도는 언제나 온통 소나무 세상이다. 다른 곳보다 소나무가 유난히 잘 보존된 이면에는 서러운 역사의 흔적이 담겨 있다. 일제 시대 때 조선총독부는 고하도 북쪽 웅두머리 근처에 1980년대 삼척교육대 같은 소년 감화원을 만들고, 주민들의 출입을 통제했다. 전

리어 소나무의 번식을 왕성하게 도왔다. 갈색의 솔방울 껍질이 하나 둘 떨어지면 씨앗은 바람에 날려 해변가의 만년 절벽 사이에 등자를 틀었다. 축축한 토양과 바닷바람은 영양분을 공급하면서 바위 틈 사이에 씨앗을 성장시켰다. 햇빛을 찾아 구불구불 굽어진 채 뻗어나가는 소나무들은 겨울철 활짝눈과 어울려 정적인 아름다움을 선사했다.

소나무는 원래 우리민족에게는 거북, 구름, 물, 바위, 불로초, 사슴, 산, 학, 해 등과 함께 심장생의 하나로 꼽힐 만큼 신령스런 존재이다. 태어난 아기를 위해 솔가지를 매단 금줄을 칠 정도로 액운을 막는 역할까지 부여받은 것이 바로 소나무다.

소나무 애찬론자들은 소나무는 하나도 버리는 것이 없다고 한다. "솔가리는 불쏘시개로 사람을 따

상담환영

하당 비뇨기과

◆ 진료과목 ◆
피부과
비뇨기과

진료시간
오전 9시 ~ 오후 7시 30분

찾아오시는길
후래슈미트 우성아파트
메가리안극장 롯데리아
삼성아파트 롯데리아
하당비뇨기과 동아아파트

위치 : 하당 후래슈미트 메가리안 극장 맞은편

전화번호 : 283-9975

수술상담환영

오비뇨기과

진료과목: 피부과, 비뇨기과

● 신송카드 환영 ●

진료시간
오전 8시 30분 - 오후 7시

목포역 LG빌딩 오비뇨기과

전화 번호 : 243-6776
위치 : 목포역 앞 엘지건물 옆

목포동문외과

수술상담환영

진료과목
· 내과 · 신경외과
· 소아과 · 비뇨기과
· 정형외과

원장: 전문의 조 기 훈

주 소:
목포시 대성동 89-2 (목여고 앞)

TEL:
(061)242-8570
홈페이지: www.mdmsurg.co.kr

정명여고 동문외과 보건소 목여고 1호광장

孟秀漢醫院

목포 맹수한의원

목포시 용당1동 1056-5번지
☎(061)272-4006, 273-3417
한 의사(원장) 李受南

하당 맹수한의원

목포시 상동978(원예농협앞)
☎(061)284-1075~6
한 의사(원장) 李 鎬 在

원예농협 우성아파트 부영아파트
노동청 맹수한의원 롯데리아 *주차시설 완비

"효도와 우정은 산길 같은 것, 자주 오고 가지 않으면 어느새 초목이 우거져 그 길이 없어지나니."